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二)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二, 丁茶山の 生涯

安鍾和氏 著 「國朝人物志」에 國朝榜目を 引하여

丁若鏞 字美庸 號茶山 羅州人 牧使□遠于 正祖朝己酉生員文科 抄啓文臣 純祖辛酉 邪獄拿□定配康津 官至承旨 所著 有牧民心書 欽欽新書等 諸書

最近 草菴 金堤柏의 草藁 「李朝人物略傳」에도

「若鏞이 才分이 超絶하여 天文地理, 兵農律算書를 다 精通하고 또 經濟大才가 有하니라」하였다. 이것을 敬畏할 政論家 某氏는 아주 廣告形式인 氏 獨特의 名論文으로 「우리 文化의 大河流, 現代에 빛나는 偉業, 茶山先生의 大經綸, 朝鮮建設의 總計劃者, 지금도 後輩가 依據할 朝鮮의 太陽」이라 하였다. 安鍾和氏들의 茶山傳보담 얼마나 誇張되었는지 보라. 그러나 우리는 十八世紀 以前의 政治家의 「白髮三千丈」式의 羅列에 對해서는 氏의 일이거니 姑捨하여 두자. 「사람이 하늘이라」는 宗教도 잊거든 「사람이 太陽」이 못할 것이 어데 잇스랴!

筆者는 껏까지 茶山을 「朝鮮의 太陽」으로 보지 아니하고 「朝鮮의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英宗 壬午(1762)生, 憲宗 丙申沒의 碩學이었다. 英, 正, 純, 憲 四代는 바로 李朝末葉의 封建崩壞過程에 直面하였었다. 新舊社會의 轉換期에 잇서서 항상 남보담 빨르게 舊社會의 矛盾을 摘發하고, 거기에 對한 改善策을 말하고 때로는 新社會의 建設策까지 想像하려는 時代的 先驅가 잇는 것이니, 이를 朝鮮史 우에서 求한다면 李朝末期의 所謂 實事求是의 學派라는 一派다.

磻溪, 星湖, 顧菴, 旅菴, 燕巖 四家 누구 누구.....가 이들이다.

이 歷史性을 理解치 못하는 某氏는 그 「碩學宏宴을 輔成하던 가지」의 理由를 들면서 一面 茶山の 天才의 素質을 지나쳐 들고 一面 茶山の 學을 星湖와 그 여러 子孫과 恭齋 尹斗緒(그의 外曾祖)의 影響 下에 된 것이라고만 하였다. 茶山の 才質이 엄청나게 超絶하여 尹恭齋의 모습을 그대로 傳했는지

물는다. 茶山이 星湖와 및 그 一族의 影響을 마든 것도 世所共知이며, 特히 上木齋李森煥書에는 「唯我星湖父子」라 하고, 上仲氏書에는 「星翁文字 殆近百 券 自念吾輩能飾 天地之大日月之明 皆此翁之力」이라 하여, 星湖에게 私淑한 바 가장 컸음을 말하였스니, 茶山の 學이 星湖에게서 어든 바 큰 것도 事實이지만, 이보담 第一 重要的 것은 時代性이었고 다음엔 個人的 □□이었고, 特히 天主學과 및 그他 洋學洗禮의 影響을 마든 것 때문인 것을 니저서는 안된다.

또 某氏는 氏 一流의 名文章(?)으로 磻溪, 星湖, 茶山の 學을 比較할세

「磻溪는 英特한 一面 否□古함도 보이고 星湖에 와서야 海波萬里라. 魚龍의 出沒과 日月의 吞吐 어느 무엇이 包有되지 아니 하얏스랴마는, 그러면서도 纖密하야 빈틈이 업고 透徹하야 피가 솟는 것 가튼 이 點에 잇서서는 先生을 일으켜 星湖를 對하게 한 대도 小子不遜敢有證焉이라 할는지 몰은다.」 朝鮮의 일이 빠진 사람은 잘 알아보기 힘드는 글이다. 얼마나 美文辭라! 이 論法대로 하면 「太陽的 存在」가 아즉도 펍 더 만허져야 될 것이 아닌가.

또 氏는 말한다. 「一面 또 經學을 通俗化하야 그 鉅多한 經學에 關한 諸書 -모두 山林에 빼앗서다가 民衆에게 公하게 하야.....」 民衆이란 뜻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茶山이 天主學을 미덥스되 聖經(빠이블)을 諺解한 일은 업는 줄로 밋는다.

×

丁茶山の 諱는 若鏞이요 또 俟菴, 苔叟, 紫霞道人 等の 號가 있다. 열 살 前에 三眉集을 지었다고 하며, 아홉 살에 그 母夫人 海南尹氏를 여이고 藏書만흔 그 外家에 歸依하야 讀書하다가, 一時 外任으로 단니시는 父親을 딸아 京畿, 湖西, 嶺南, 各地에 단니며 見聞과 修書를 □하고, 正祖 七年 廿二歲에 生員入格하고 廿三歲에 曠庵 李檠에게서 西學(天主學)에 關한 말을 듣고 豁然大悟한 듯하엿다. 이것이 世界觀에 큰 속크[쇼크]를 주어 그후는 當時 貴族子弟의 唯一한 登龍門인 科擧에 落榜하고도 「文章違俗眼, 花柳人羈愁...馬卿亦賤子, 題枉俗何求」오 하고 飄然히 解脫한 듯한 寗김이 잇섯다. 廿八歲에 文科, 廿九歲에 司憲府持平, 三十八歲에 刑曹參議란 官路에까지 陞進하야 그 동안 水原築城, 谷山善政 等 볼 것이 만타. □嶺綿郡守康命吉 等の □律罪를 處分한 것은 그의 三十三歲 때 暗行御史 時代의 일이다.

그는 그 波瀾□□한 속에 或은 內任에 或은 外力에 늘 官職을 □□한 만큼 民間의 疾苦를 가장 알 수 있게 되엿섯다. 그래서 純祖 元年 辛酉西學案에 坐하야 兄을 위하야 臣不可以□君, 弟不可□兄 等 名答辯을 남기고 慶北 長鬐로 귀양갓다가(李能和著, 朝鮮基督教 及 外交史 一一七頁) 그해 十月에 全

南 康津으로 오게 되어, 謫居 十九年에 從來의 豊富한 學術과 經驗을 傾倒하여 著述에 從事한 것이 바로 오늘날 世上에 떠돌게 된 諸著述이라. 그후 五十七歲에 풀려 上京하여 七十五歲를 一期로 다시 그 生地 「光州 馬峴」에서 歿하였다. 그리하여 長鬢, 康津 配所에서 餘恨한 事業으로서 해노흔 著述이 매우 豊富하다.

爾雅述, 百諺詩, 檀弓箴誤, 喪禮四箋, 詩經講義, 嘉禮酌儀, 小學珠串, 我邦疆域考, 禮箋喪期別, 民堡議, 春秋考徵, 論語古今註, 孟子要義, 大學公議, 中庸自箴, 大東水經, 心經密驗, 小學枝言, 樂書孤存, 邦禮艸本, 牧民心書, 國朝典禮考, 欽欽新書, 雅言覺非, 易學緒言 等이다.

茶山은 喪□, 四書, 五經 等에 著作이 만흔 뿐 아니라 相當히 自身을 가졌든 것 가트나 가장 後人의 參考에 提供될 것은 地理書로 疆域考, 水經, 油水紀行, 語學類로 雅言覺非, 耳談續纂, 行政學으로 牧民心書, 邦禮草本, 刑法判決例로 欽欽新書, 漢文學으로 詩, 散文 그他, 略.